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금 명 자[†]

대구대학교

2000년대를 전후로 급증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실태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조망하였다. 용어, 실태, 원인과 과정 및 학업중단 이후 과정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이해하고, 이를 다시 12가지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을 생태학적 모형으로 재구조화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사회적 안정구조의 흔들림과 1998년의 IMF 사태는 청소년들의 1차 환경인 가정과 학교에 영향을 미쳤다. 가정은 이혼 등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약화시켰고, 학교에서는 교권과 교칙이 약화되면서 교사와의 갈등, 학업의 목적과 흥미 상실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우울, 무력감, 공격성과 같은 정서적 반응, 미래의 불투명성, 학업적 의미 상실과 같은 인지적 반응 및 부적절한 성행동, 폭력과 같은 표면화된 비행행동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가출과 학업중단이라는 표면화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후 이들의 학업 유지 의도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 의해 비행화가 가속되었다. 이들에 대한 국가적 대처에 대한 제안과 제한점들이 논의에 첨가되었다.

주요어 : 학업중단청소년, 원인과 과정, 생태학적 모형

[†] 교신저자 :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E-mail : mjkeum@daegu.ac.kr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력이나 학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인생에 성공하려면 최소한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 경험으로 학업 실패를 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현상이 급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업을 그만두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조명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동민, 권혜수, 이소영, 이희우(2003)가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중고등학생들 1,7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1.8%는 ‘대학은 꼭 나와야 성공 한다’고 하였으며, 21.9%는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이 무엇보다도 고민하는 것은 진로문제(45.7%)이며, 그 다음은 학업과 학교부적응 고민(28.7%)이었다.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05)이 우리나라 청소년과 부모에게 조사한 실패경험에서도 입시실패와 성적하락 등 학업실패가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경험(46.0%)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과 학교졸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지를 잘 보여준다. 지난 2002년 5월에 정부는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내놓았으며, 교육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정부가 종합대책안을 내놓으며, 범국가적으로 접근하기까지 된 것은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와 학업을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급증하였기 때문

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업을 그만두는 청소년들의 증가추세를 조사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추세를 설명하는 변인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의 교육적 성취의 이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명칭 및 정의로 살펴본 학업중단의 이해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와 과정들에 대해 이해하기에 앞서 여기에서는 이들을 일컫는 명칭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지칭하는 명칭들이 매우 다양하였고, 특정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그 명칭을 사용한 연구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연구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들이 사용한 명칭의 특정 의미와 의도는 학업중단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의 한 측면을 제공해줄 것이다.

연구들에 나타난 명칭들은 중퇴생(장석민, 1988; 조영승, 구본용, 신현숙, 유순덕, 2001; 신현숙, 구본용, 2002) 중퇴청소년(황선미, 신현숙, 2007), 학교중퇴(표갑수, 1992; 오현애, 2002; 이승재, 2004; 김용훈, 2006), 학교중단(이소영, 2002), 학업중퇴(송복, 손승영, 조혜정, 황창순, 김병관, 정경희, 1996; 조아라, 2001; 김순규, 2004), 학업중퇴청소년(박현선, 2003), 중도탈락(배영태, 2003; 이숙영, 1997; 유성경, 이소래, 1998; 윤미경, 2002), 학교중도탈락(김혜영, 2002; 배영태, 2003; 김민정, 2001), 학업중단청소년(전경숙, 2006; 이병환, 2002; 윤여각, 2002; 이창호, 지승희, 장미경, 2002; 김동민, 금명자, 권혜수, 이소영, 이희우, 이광호, 2003; 윤미원, 2006; 최정자, 2007), 학교밖청소년(금명자, 권혜수, 이자영, 이수립, 김상수, 2004), 학교를 떠난 아이들(홍임숙, 2004; 안현

의, 2002)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학업중단 관련 연구들 대부분은 분명한 정의 없이 진행되어, 명칭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 없이 한 연구 안에서도 혼재되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용어의 정의나 의미를 밝힌 연구들과 그 의미에 따라 대상을 정한 연구들을 통해 명칭으로 나타난 청소년의 학업중단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명칭은 크게, ‘학생 대 청소년’, ‘학교 대 학업’, ‘중퇴 대 중도탈락 대 중단’으로 구분된다. 학생과 청소년은 대상의 범위와 관련된 용어들이고, 학교와 학업은 그들이 그만둔 것이 학교인지 혹은 학업인지 하는 문제로서 그 이후의 적응 방향과 연결된다. 또 중퇴나 중도탈락이나 혹은 중단이냐는 용어는 그만두는 행위의 의도성과 관련된다.

대상의 범주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만을 언급한 것이라면 ‘청소년’은 일정 시기에 속한 사람 전체를 의미하므로 학생보다는 청소년이 보다 광의적이다. 청소년에는 학생 청소년 외에 근로청소년, 재수하고 있는 청소년 등 비진학 혹은 무직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학생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에 영향을 받지만 청소년은 총리실 산하의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2002년 범정부차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시행하는데 있어 교육인적자원부 보다는 그 당시 청소년관련 정책의 주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 청소년 국에서 종합대책안을 시행하게 된 것(금명자 등, 2004)도 학생과 청소년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제목 아래 진행된 연구에서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 연구대상으로 활용된다. 에컨

대 황선미와 신현숙(2007)은 재학생과 중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주체와 일치시키고 있다. 금명자 등(2004)의 연구에서도 정책 시행의 대상을 이미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나 시설(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에 있는 청소년으로 하였고, 이들을 위한 정책의 구체적 시행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청소년이라는 제하에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나 의식 및 결정요인을 확인한다면(예, 김옥엽, 이연숙, 원유미, 2004) 대상의 혼란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학교’는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물리적 장소라는 의미가 강조된다면 ‘학업’은 시간이나 공간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로서의 의미 곧 공부라는 의미를 갖는다.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검정고시라든지, 대안 시설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 중단이지 학업중단은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는 다니고 싶지 않지만 학업은 계속하고 싶어 한다고 안현의(2002)는 주장한다. 실제로 안현의, 이소영, 권혜수(2002)는 학교를 그만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대안교육을 통한 학업지속임을 확인하고 있다. 김혜영(2002)은 학교중도탈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들이 자신들을 짝린 아이 혹은 때려친 아이로 정체화한다고 하였다. 짝렸거나 때려친 것은 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이지 학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면접대상들은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검정고시나 에니메이션 학원 등을 다니고 있었으며, 학교를 여전히 다니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황선미, 신현숙(2007)은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기 이전에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학교 공부를 중단하는 현상을 학교중도탈락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연구사인 이병환(2002)은 ‘학업중단학생’으로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에 대한 총칭이라고 정의하여 정규 학교의 포기를 강조하여 학교생활 포기를 학업으로 본 입장도 있다.

‘중퇴’는 중도에서 그만두는 것을, ‘중도탈락’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떨어져나감을, ‘중단’은 중간에서 끊어지는 현상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때, 중퇴는 그만두는 자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으나 중도탈락은 원하지 않으나 떨어져 나온 것과 같은 수동성이 있다. 반면 중단은 현상 자체를 의미하는 중성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나 연구들은 이러한 정의를 따르지 않고 있었다. 황선미, 신현숙(2007)은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어떤 이유로든지 그만두는 현상으로 중도탈락을 사용하였고, 구본용과 유제민(2003)도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는 것을 중도탈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병환(2002)은 2002년 이전까지는 ‘중도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고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학교공부를 지속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졸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교육부(1996)는 중도탈락이란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그리고 전체 사회에 존재하는 다변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일탈 현상’이라고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중도탈락에는 사회적 일탈, 인정받지 못함과 같은 부정적 의미와 수동적 의미가 있다.

금명자 등(2004)은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학업은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이란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 중에는 근로청소년, 비진학청소년, 무직 청소년 등 학교울타리 밖에도 청소년은 많으

며, 이들에게 학교 정규교육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는 교육뿐 아니라 여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여 학교밖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이란 명칭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원이나 정책을 강조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정홍재(2005)는 자신의 연구가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에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42조에 규정된 대로 ‘학업중단청소년’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 그들의 일면을 조명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시대적 현상으로 드러난,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정규교육 과정을 중단한 학생이었던 자’에 제한하여 ‘학업중단청소년’이라고 부르고 정의한다. 이 정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성적인 현상임을 강조한다. 교육법전(2002)에 의해서도 학업중단이란 정규학교 소속자 중 비행, 질병, 가계곤란, 이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태로 살펴본 학업중단에 대한 이해

어느 나라이든 어느 시대이든 학업중단청소년은 있어 왔다. 실제 우리나라의 고교졸업율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1999년 OECD 국가의 평균은 79%이나 우리나라는 91%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는 78%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학벌이나 교육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보면 10명 중 1명이 졸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비교적 위협적이다. 조한혜정(1996)이 학교를 거부하는 학생이라는 주제를 이미 다루었지만 본격적으로 학업중단에 대해서 관심을

모우고 사회적 담론이 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김민, 2000; 추병식, 2003). 이들 담론의 주제는 학업중단이기 보다는 학교부과에 관한 것으로 교권에 대한 붕괴, 교육적 위기가 더 중심적이었다. 그러므로 학업중단은 교육 붕괴, 교권붕괴, 학교부과의 연결선상에서 발생한 파생물인 셈이다.

이렇듯 학업중단은 역사적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에 대한 연구가 쏟아져 나온 시기를 보면 2002년에서 2005년까지이다. 국가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종합 대책안’을 2002년에 발의하였고, 한국청소년개발원(윤여각, 2002; 김규태, 2002; 박창남, 2002), 한국교육개발원(윤여각, 박창남, 정병유, 진미석, 2002), 한국청소년상담원(이창호, 지승희, 장미경, 2002; 김동민 등, 2003; 금명자 등, 2004)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이해와 대처전략, 정책 등을 다룬 연구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학술잡지와 석박사 학위논문들도 대개가 이때에 제출되었다.

실제로 통계치(표 1)를 보면 이때에 학업중단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도에 2.1%였던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률이 2000년에는 2.4%,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2.7%로 증가하여 지속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서 보다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1995년에 3.2%였던 학업 중단률이 2000년에는 4.3%로 증가하였고,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각각 5.1%, 4.9%로 증가하였다. 사실 2002년 이후의 숫자는 그 전과 달리 유학자나 이민자, 사망자를 제외한 수임을 감안하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꾸준히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실제적 증가는 이들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연구들을 촉발시켰고, 학술지에도 이들에 대한 연구들이 대거 발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뒤로는 이러한 증가현상이 주춤하고 있다. 2004년에는 2.1%, 2005년도에는 1.8%로 감소하는 경향성마저 보인다. 실업계 고등학생에서도 2003년에 4.0%, 2005년에 3.3%, 그리고 2005년에는 3.0%로 감소 진행이 보다 명확하다. 증가가 둔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률은 2% 정도를 유지한다. 2005년의 1.8%는 실제의 숫자로는

표 1. 1995년에서 2005년까지 중,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 (단위 : %)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1990	1.0(0.9)	2.3(1.3)	1.8(1.1)	3.0(1.6)
1995	0.8(0.8)	2.1(1.6)	1.3(0.9)	3.2(2.4)
2000	0.9(1.0)	2.4(2.0)	1.2(1.1)	4.3(3.6)
2001	1.0(1.1)	2.7(2.3)	1.5(1.3)	5.1(4.1)
2002	1.1(1.1)	2.7(2.4)	1.7(1.5)	4.9(4.4)
2003	0.9(0.8)	2.7(2.0)	1.4(1.3)	4.0(3.7)
2004	0.7(0.7)	2.6(1.9)	0.9(0.8)	3.3(3.0)
2005	0.7(0.7)	1.9(1.7)	0.7(0.7)	3.0(2.6)

교육통계연보

2만4천 명 정도이다. 물론 우리나라 학업중단률은 OECD 회원국을 포함한 28개 국가의 중등학교 평균 학업중단률 13%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창호 등(2002)은 우리나라와 같이 학력이 중시되고 학교 밖에서의 대안교육의 기회가 적어 비행으로 빠져들기 쉬운 상황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왜 2000년대를 시작으로 2003년도까지 학업중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가? 시기에 따른 상담 사례 문제 유형의 변화를 분석한 금명자(2002)는 사회적 변화가 청소년 문제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녀는 1999년에 가솔과 학업중단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1998년 초에 있었던 IMF 이후 가정과 학교라는 안정적인 전형적인 틀이 붕괴되면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1993년에서 1997년까지 정치/경제적으로는 정권교체와 지역감정, 국민소비 수준의 증가로 인한 빈부차이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었고, 사회/문화적으로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대량 참사가 나타나 총체적 위기가 고조된 시기였다. 또한 여행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고, 여성 평등의식이 고조되면서 부부갈등이 침체화(박경애, 김형수, 최한나, 박관성, 2001)되는 등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이 구체화되고, 갈등이 재난으로 연결되는 시기’로 집약된다.

한편 1998년에서 2001년까지는 IMF가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사건으로서 이에 따른 구조조정, 재벌개혁, 노사갈등, 빈부격차, 경제 파탄으로 인한 가정 붕괴와 이혼의 증가로 이어졌다. 사회적으로는 성규범이 약화되어 청소년 성매매, 비리 표출 사건, 개인주의 확대, 여성관련 특별법들(가정폭력법, 성폭력법, 고

용촉진법 등)이 제정되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책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벤처 열풍, 교권붕괴, 의약분업 등 그 때까지는 확고했던 계층에 대한 도전과 계층 간 갈등의 심화(박경애 등, 2001)는 부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다양성 수용으로의 전환’으로 해석되었다. 금명자(2003)는 이러한 2000년 내외의 시대가 보이는 다양한 계층 간의 구체화된 갈등과 다양성의 수용이 청소년들을 적극적이고 외현적으로 행동하게 하였고, 틀 안에서 틀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추병식(2003)도 학업중단은 학교붕괴의 직접적 결과이지만 시대적으로 교육의 탈근대적 다양성의 결과라고 하였다. 김민(2000)도 1999년의 매스미디어에서 공교육의 위기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을 강조하면서 담론을 보다 정교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타임지(아시아판) 2002년 4월 15일자(vol.159, no.15)는 ‘아시아의 학교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 하에 일본과 한국의 학교 폭력문제, 홍콩과 태국의 청소년 자살률, 대부분의 아시아의 국가에서 증가하는 학업 중단율을 다루었다. 기사는 아시아의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에서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없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동민 등(2003)은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이 1993년에는 86.0%, 1997년에는 51.2% 그리고 2003년에는 28.7%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진로에 대한 고민은 1993년에 30.9%에서 2003년에는 45.7%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2003년도 당시의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를 구분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이 꼭 상급 학교 진학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은 당시

의 사회적 사건에 의해 초래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학교와 교육의 위기가 학생들의 학업중단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인과 과정으로 살펴본 학업중단의 이해

위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실태 변화 경향성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이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닐 텐데, 어떤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고, 다른 청소년은 중단하지 않는 것인가?

학업중단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제로 미국의 중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10%로 우리나라의 약 2% 보다는 높으며, 그로 인해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와 이론들이 무성하다. 그러나 안현의(2002)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해서는 한국적 해석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즉 미국에서는 학업중단을 정신 병리적으로 풀어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입시제도와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안현의 등(2002)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나 재학생의 심리상태나 미래에 대한 낙관성, 진로의식에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고, 신현숙과 구분용(2003)도 학업중단 청소년과 학업중단의 고위험학생이 여러 가지 부적응적 변인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금명자, 주영아, 이자경, 김상수(2005)는 학업중단의 원인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사회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즉 학교, 가정, 친구의 문제가 중요 원인이었으나 1990년 대 이후 향락문화의 변창과 왜곡된 직업의식(황창순, 1996),

안정된 구조의 흔들림(금명자, 2003)에 의해서 비행 행동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비행행동과 학업중단과의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병환(2002)도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부적응 현상으로, 학교체제의 유연성 부족으로 학업중단이 야기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학업중단은 그 지역, 그 시기의 특성을 유념하여 연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들에 나타난 학업중단 변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배영태(2003)는 130여개가 넘는다고 하였고, 구분용과 유제민(2003)은 150여개가 넘는다고 하였다. 이들 100여개의 변인들은 크게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 요인, 교우관계 요인, 지역사회 요인들로 범주화되어 연구되었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면서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변인과 이들 변인들의 상호작용 및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윤여각 등(2002)은 학업중단의 이유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유형을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한 불만 유형, 두 번째는 경제적 빈곤 유형, 세 번째는 학교 인간관계의 불만족, 네 번째는 교과공부에 대한 어려움, 다섯 번째는 교칙위반 등의 비행 유형, 다섯 번째는 건강 악화, 마지막은 조기 유학이나 이민 등이다. 이들은 이 일곱 가지 유형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 변인 끼리는 영향을 미치며, 단계를 구성하는 등의 흐름도(그림 1)를 제안하였다. 흐름도에 따르면 생계 위협 등의 경제적 빈곤은 가정의 불만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에 대한 불만과 교과 공부의 어려움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가정의 불만은 다시 가출로 연결되고, 학교의 인간관계와 교과 공부의 어려움은 심각한 교칙 위반을 발생시킨다. 결국 가출과 심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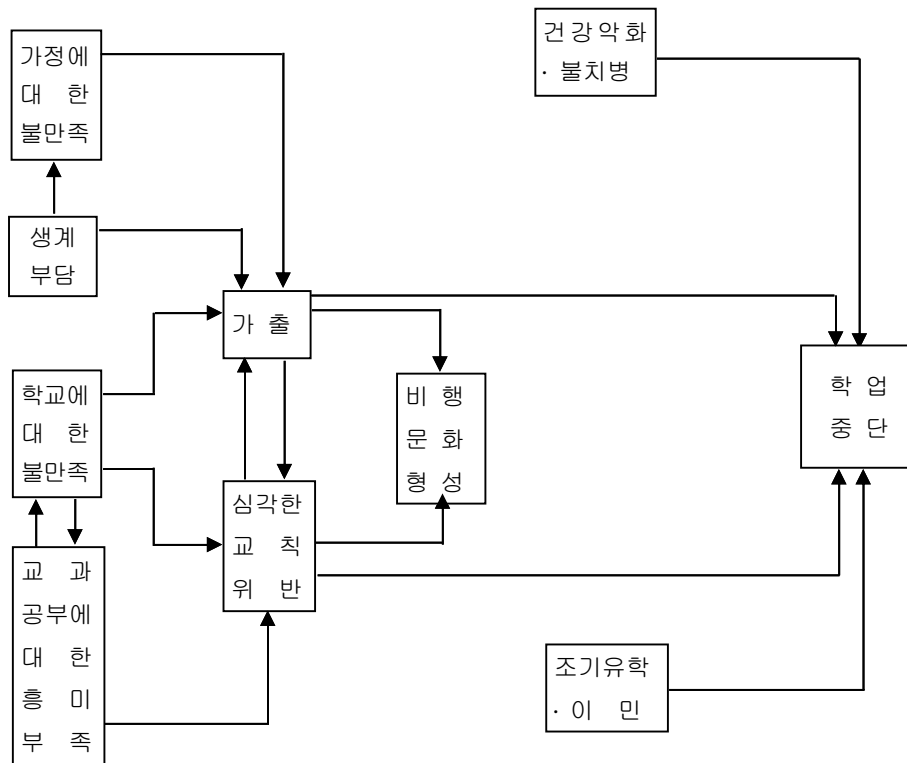


그림 1. 중도 탈락의 이유와 흐름도(윤여각 등, 2002)

교칙위반은 비행문화와 행동을 형성하여 학업 중단을 이끈다는 것이다. 물론 건강과 조기유학은 별개의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비행의 내현적 행동(오경자, 하은혜, 1998)에 해당할 수 있다.

전경숙(2006)도 학업중단의 과정을 제안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업중단청소년들의 근로실태를 면접 조사한 이 연구는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는 가정, 입시와 학력위주의 학교환경에 대한 부적응, 유사한 생활조건을 지닌 친구관계망 등이 이들을 가출로 유인하였고 가출은 이들에게 일을 요구하였고, 일을 하려면 학교를 규칙적으로 다닐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즉 윤여각 등(2002)과 마찬가지로 전경숙(2006)도 가출이 학업중단의 직접

적 계기이자 동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금명자, 주영아, 이자영, 김태성, 김상수, 신현수(2005)도 비행 경험이 학업중단청소년과 재학생을 가장 잘 구분해주는 판별변인이라고 하였다.

배영태(2003)는 학업중단의 근접변인과 원격변인을 구분하여 과정을 추론하였다. 그(2003)는 국내외 논문 58편에서 제시한 학업중단과 관련된 변인들 130여개 - 개인변인 45개, 가정요인 37개, 학교요인 38개, 교우관계 요인 9개, 지역사회요인 2개 -를 개인요인군 7개, 가정요인군 6개, 학교요인군 7개, 교우요인군 2개, 지역사회요인군 2개 등 24개의 요인군으로 범주화하여 학업중단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재학생과 학업중단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요인군에 대한 판별분석을 하여 학업중단의 중요한 단서를 찾으려고 하였다. 결과, 공격성, 결석/유급, 부정적 교사태도, 중탈가족수, 가정결손 정도, 부적절한 이성관계, 불량 교우관계, 또래 동조, 건전 집주변환경이 학업중단청소년과 재학생을 가장 잘 변별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이 직접적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학생들은 학업중단을 예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격성과 같은 개인적 변인, 결석이나 부정적 교사태도와 같은 학교변인, 가정의 결손 정도, 중탈가족수와 같은 가정변인, 불량 교우관계, 또래동조와 같은 교우변인, 집주변 환경과 같은 지역사회요인들이 모두 함께 학업중단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다시 이러한 변인들은 부정적 학교교육관, 불량 교우관계, 비행행동, 부적절할 성행동 등 비행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가지고, 학업중단의 근접요인과 원격요인으로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윤여각 등(2002)의 흐름도를 적용해보면, 비행행동이 학업중단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가정, 학교, 교우 범주군들은 학업중단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구본용과 유제민(2003)은 학업중단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강조한다. 구본용과 유제민(2003)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158개의 변인들을 데이터마이닝하여 개인적 범주, 가족 범주, 또래 범주, 학교 범주 등 20개의 변인들을 선정하여 다시 13개의 위험요인과 7개의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에 대해 인공 신경망분석을 하였고, 위험요인이 보호요인보다는 설명력이 높다고 제안하였다. 즉 위험요인이 증가할수록 학업중단이 증가하였으나 보호요인이 증가한다고 하여 학업중단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또

한 학업 중단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보호요인의 증가보다는 위험요인의 감소에 의했기 때문이었다. 위험요인에는 우울정도, 흡연, 음란물 시청, 임신여부, 가정의 경제적 수준, 교우와의 관계, 친구에 대한 교사의 평가, 학업성적, 무단결석, 지각 빈도, 전학 경험 등이 포함된다. 연구자들은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전략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비행이 학업중단에 직접적 원인이고, 기타의 위험요인이 비행으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현숙, 구본용(2002)은 학업과 관련한 원인이 학업중단의 직접적 계기임을 주장한다. 그들은 이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과 학업중단고위험학생 및 저위험학생을 구분하여 개인, 가정, 학교, 교우 등 학업중단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차이점을 조사였다. 결과, 학업중단 저위험학생은 고위험 학생이나 중단청소년들에 비해 대개의 변인들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나 고위험의 학생은 자아개념, 부모-자녀관계, 교우관계, 교사-학생관계의 부적응성이 유사하였다. 다만 고위험학생이 이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과의 차이가 있다면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정도가 달랐다. 오히려 미래 생활과 진학에 대한 걱정, 무기력, 우울, 나태한 생활습관 등에서는 고위험학생이 학업중단청소년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즉 고위험학생도 계기가 마련되면 학업중단으로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고위험학생은 저조한 학업성적,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의 상실, 학교공부의 필요성 결여 등 주로 학업과 관련한 이유로 학업중단의 충동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도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한 결정적 요인들로 학교를 다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학교의 규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 학교 공부를 따라 갈 수 없었다는 것 등 학업 혹은 학교와 관련한 이유를 들고 있다.

한편 박현선(2003)은 또 다른 시각을 제안한다. 위의 연구들은 비행이나 학업관련 문제가 학업중단을 야기하는 직접적 변인으로 제안하지만 박현선(2003)은 학업중단을 시간적 과정으로 네 단계를 나누면서 의미상실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네 단계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이미 의미상실의 단계가 있었고, 이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단계, 그 후 사회적 실패와 경험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의미 부여 단계로 이어졌다. 결국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부인 것으로, 학업중단청소년들에 대하여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정보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그들의 의미부여 노력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위의 연구들이 다양한 변인들을 단면적으로 혹은 단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다면 김혜영(2002)은 질적 연구를 통해 이런 변인들을 다차원적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와 교사를 직접 면접하고 이들의 진술을 가지고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사회적 맥락으로 해석하였다. 즉, 학업중단청소년들을 짝린 아이와 때려친 아이로 구분하였는데, 짝린 아이는 학업중단의 주체가 학교이고, 때려친 아이의 학업중단 주체는 청소년 자신이다. 이러한 구분은 자발적 학업중단과 비자발적 학업중단의 명칭과 유사한 것이나, 김혜영(2002)이 이러한 단어를 쓴 이유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신이 자

신의 정체성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짝린 아이들은 자아통제기능이 부족하고, 자신의 친구관계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의 교사는 아이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부모들은 아이에 대해 무기력하였고 방임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때려친 아이들은 무기력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친구들도 학업중단을 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에 기억하는 것들이 많았으며, 아직도 염려하고 있었으며, 부모들은 위축되어 있다고 하였다. 학업중단의 원인은 다차원적 맥락에서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이해해야 하며,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에 의해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은 심화되며, 학교 내의 교사와 선배간의 부정적 관계와 친구의 자퇴가 학업중단을 동요시킨다는 것이다. 학년급에 따른 학업중단 실패와 원인에도 차이가 있었다. 금명자, 권해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2004b)은 학업중단청소년 1010명을 대상으로 중학생, 인문계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시점과 주요 원인들을 조사하였다. 중학생의 경우는 37.5%가 2학년 때, 32.5%는 3학년 때에, 그리고 28.8%가 1학년 때에 학업을 중단하여 학년급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1학년 때 대부분의 학업중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61.0%가, 실업계인 경우에는 65.7%가 각각 1학년 때 학업중단을 하였다(그림 2). 또한 학업중단을 하게 된 주된 이유 지각에도 학년급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였다.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과 흥미상실이 가장 유력한 학업중단의 원인이었고,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는 학교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진 학업중단의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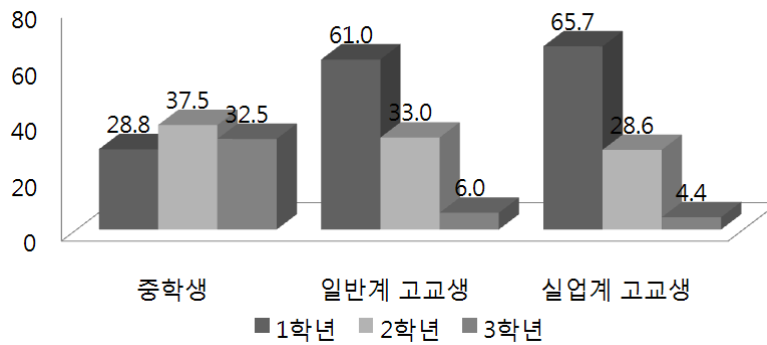


그림 2. 학업중단시기(금명자 등, 2004b)

인이었다. 구본용, 신현숙, 유제민(2002)도 학년급에 따라, 남녀학생에 따라 학업중단의 결정적 변인이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중학생의 학업중단을 가장 잘 변별해주는 변인으로 부모의 교육적 기대, 어울리는 또래에 대한 교사의 평가, 결석이나 지각 등 수업결손이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흡연, 무기력 및 우울, 미래 진로에 대한 기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학업중단을 변별해주었다. 중학생의 경우는 학교와 교육의 직접적 갈등이 원인이라면 고등학교는 이러한 좌절이 누적되어 개인의 심리적 반응들이 학업중단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즉 미래의 불투명성과 같은 인지적 반응, 무기력과 정서와 같은 정서적 반응, 흡연과 같은 비행행동 등이 학업중단 시점의 청소년의 심리적 모습이다.

한편 구본용 등(2002)은 남녀학생 간에도 원인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남학생은 학력에 대한 자신의 희망사항과 현실적인 실제 상황과의 괴리가 변별변인이었고, 여학생에게는 부모-자녀갈등과 학년 변화와 같은 과도기의 부적응이 중요한 변인이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가족 갈등이나 친구 갈등은 일차적인 괴리에 의해 생긴 이차적인 현상이었

다. 정리하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나 학업과 관련한 변인이 중요하였고 고등학생에게는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남학생은 학력에 대한 좌절이었고 여학생에는 관계와 관련한 변인이었다.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 과정과 필요로 살펴본 학업중단의 이해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이들이 어떤 적응과정을 보이는 지,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그들이 학교를 그만 둔 진정한 이유들을 추론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에게 필요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윤여각 등(2002)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의 선택지는 학교교육체제로 복귀하는 것과 학업을 포기하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되고, 학업포기는 다시 사회적으로 용인된 직업생활을 하는 것과 비행이나 범죄에 참여하는 생활로 분리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안현의, 이소영, 권해수(2002)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212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결과, 원하는 직업이나 진로선

택(33.5%), 경제적 자립(12.3%), 원하는 학교의 진학(10.4%)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를 그만두고 가장 필요했던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안학교(25.9%), 진로상담(20.5%), 심리상담(2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안현의 등(2002)은 우리나라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둘 뿐이지 학업이나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반면 금명자, 권해수, 이자영, 이수림, 김상수(2004)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26.9%), ‘검정고시 준비’(13.4%), ‘기술을 배워 사회에 빨리 진출하고 싶다’(13.4%), ‘내가 원하는 분야의 전문성 배양’(13.4%) 등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이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학교에서 밀려난 것이기 보다는 빠른 사회진출이라고 추론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받고 싶은 도움으로는 ‘검정고비 준비’(22.8%), ‘복학 절차의 안내’(19.3%)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현의 등(2002)이 주장하듯이 그들이 학업을 포기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금명자, 주영아, 이자영, 김태성, 김상수, 신현수(2005)는 학업중단청소년 217명을 대상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경험한 것들을 모두 표시하게 하였더니, 아르바이트가 65.8%로 가장 많았고, 50.8%는 검정고시, 30.2%는 대안학교, 20.7%는 복학을 경험하여 학업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자격증 취득기관이나 직업전문학교는 각각 약 15% 정도였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대체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나 학업 행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업중단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진로와 관련된 지원임을 지적하면서 황선미와 신현숙(2007)은 고등학교 재학생과 학업중단 청소년

의 진로준비, 진로장애 및 진로결정의 관계모형을 검증하였다. 결과 관계모형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진로준비와 결정수준에 서도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진로장애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재학생들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연구의 대상자들이 진로훈련을 받고 있었던 학업중단청소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업중단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학업중단청소년을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자로 보는 관점을 택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 학업 유지 행동과 진로·직업훈련의 두 방향으로 그 진로가 나뉘어짐을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적응적 진로로만 유지되지 않았다. 그들은 준비 없이 학업을 중단하였고, 사회는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금명자, 권해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2004b)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 1년 동안의 생활을 추적하여, 급격히 비행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중학생의 경우 처음 1-6개월 사이는 일없이 친구들과 방황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은 주유소나 PC방에서의 아르바이트가 높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모두 보호관찰과 유흥업소 아르바이트의 비율이 높아져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가 시급함을 보고하였다. 예컨대 중학생들은 초기에 5.5%에 지나지 않던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이 1년 후에는 10.8%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생활은 초기 2.6%에서 1년 후에는 5.0%로 증가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5.4%의 보호관찰이 13.4%로, 2.6%의 유흥업소 아르바이트가 10.7

%로 증가하였다(그림 3, 4).

이렇듯 급격한 비행화는 이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사회에서도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64.6%가 자신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어(그림 5) 이들이 상의 없이 혹은 준비 없이 학업중단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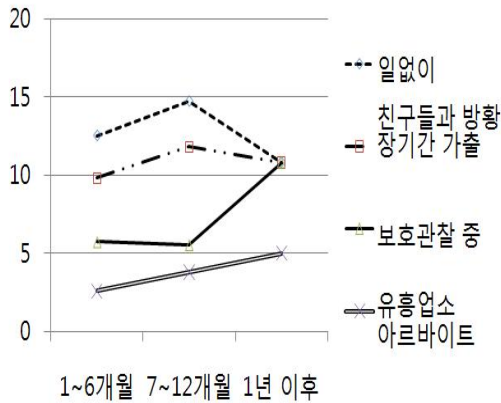


그림 3. 중학교 학업중단청소년의 생활 (금명자 등, 200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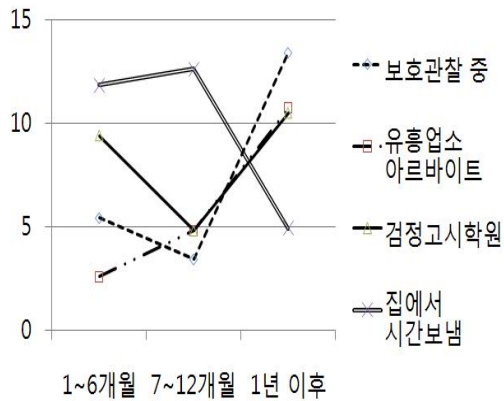


그림 4. 인문계 고등학교 학업중단청소년의 생활 (금명자 등, 200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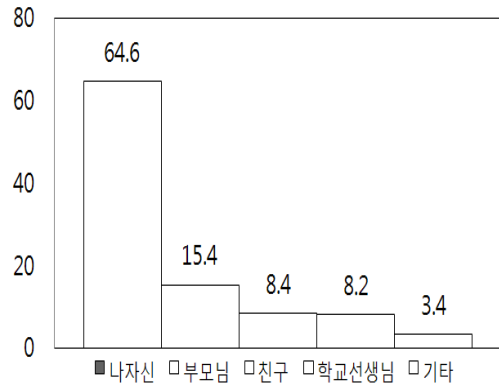


그림 5. 학교를 그만둔 결정시 영향을 미치는 사람 (금명자 등, 2004b)

더불어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 금명자 등(2005)은 지적 능력, 경제 능력, 대인관계, 목표의식, 비행 경험, 생활태도, 지지 환경 및 정신건강 등 8 가지 변인을 통해 학업중단청소년들의 적응도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들의 비행화는 바로 이 여덟 가지 변인에 의해 예언할 수 있는 바, 지적능력, 경제 능력, 대인관계, 목표의식, 생활태도, 지지 환경이 낮거나 나쁘고, 비행경험이 있으면 비행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논 의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청소년’으로 정의한 ‘학업중단청소년’은 20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눈에 띄는 학업중단청소년의 증가는 국내의 사회적·역사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 정책의 체계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

서 발표된 자료와 연구들을 통해 실패와 원인 및 학업중단의 이후까지의 과정을 이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한 후, 종합적 조망을 제안한다.

연구들을 통해 정리된 청소년 학업중단의 특성들

- 1) 학업중단청소년들은 공교육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모두 학업을 그만둔 것은 아니다.
- 2)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율은 2000년을 중심으로 2003년까지 지속적 증가 경향성을 보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2.4%에서 2.7%를 유지하고 있었다.
- 3) 1990년대의 다양한 계층 간 갈등과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틀의 흔들림에서 시작되어 1998년 IMF 사태가 학업중단의 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 3) 사회·역사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혼 등의 가정적 갈등과 붕괴가 표면화되었고,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청소년 자녀들을 위한 가정의 심리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이 약화되었다.
- 4) 사회·역사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교권이 급속히 약화되어, 학교 내 인간관계에 갈등이 초래되었고, 교칙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되었다. 표면화된 학업적 긴장과 곤란은 이전까지의 위축 반응 보다는 공격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 5)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군은 개인, 가정, 학교, 교우, 지역사회군들로 구분되며, 이들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으로서 학업중단에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

6) 개인적 원인에는 공격성, 무력감,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면, 미래의 불투명성, 의미의 상실, 학교공부의 필요성 상실, 학업 흥미 상실과 같은 인지적인 면 그리고 나태한 생활태도, 무단결석과 잦은 지각, 음란물 시청, 부적절한 성행동과 같은 행동적인 면들이 포함되었다.

7) 가정적 원인에는 가정의 결손, 경제적 어려움이 포함되었고, 학교 원인에는 학업성적의 저하, 공부에 대한 흥미 상실, 학교 규칙에의 부적응, 교사와의 갈등 등이 포함되었으며, 교우 원인에는 불량 친구, 또래 동조, 부적절한 이성행동 및 집주위 환경과 같은 지역 사회적 원인들이 포함되었다.

8) 원인들로 분류된 변인들은 학업중단의 직접적 원인이기 보다는 위험요소들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9) 가정과 학교, 친구, 지역사회의 위험요인들이 가중되어 비행행동이 나타나고, 비행행동이 학업중단으로 연결되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

10) 학업중단 이후 과정은 크게는 학업 회복에 대한 노력과 학업포기로 나누어지고, 학업포기는 사회적 조기 진출과 비행화 등 다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11)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체계적 지지나 지원이 없으면 1년 내에 비행과 같은 부적응 현상이 급증하고 이는 사회적 부담이 된다.

12) 청소년들은 준비 없이 학업 중단을 결정, 시행하고, 사회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비행화를 가속시켰다.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생태학적 모형

이상의 12 가지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중단 특성들을 가지고 생태학적 이론에 입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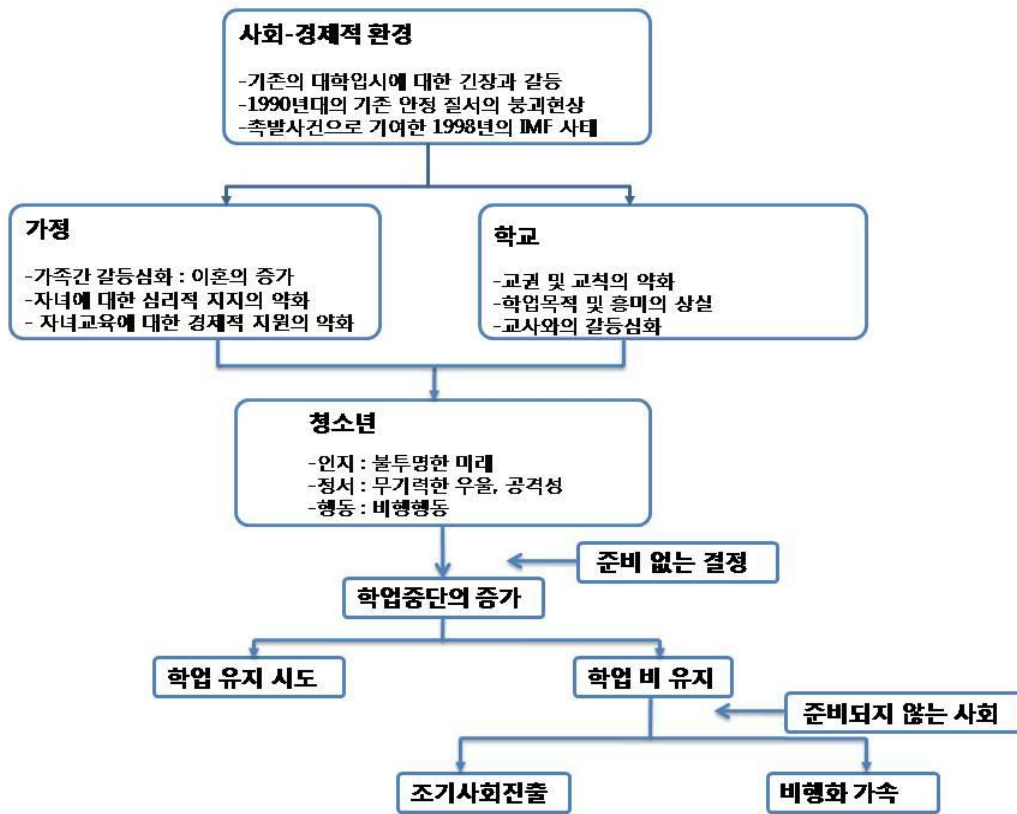


그림 6.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중단의 생태학적 모형 도식

여 다음과 같은 청소년의 학업중단 과정을 도식화하였다(그림 6).

인간을 가족, 이웃, 국가 등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서 이해하는 생태학적 입장에서는 환경체계와 개인 간의 관계를 연구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역사적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체계를 포함하고 있어 인간의 변화에 미치는 사회역사적 환경의 영향력에 관심을 가졌다. 생태학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누적되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이

부모 이혼 후 첫 해에 최고조에 달하며, 딸보다 아들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Hetherington(1981)의 연구나 경제공황이라도 생애의 어느 시기에 맞느냐에 따라 성인기의 행동특성과 정서문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Elder와 Rockwell(1978) 등이 그 예들이다. Danish, Smyer 및 Nowak(1980)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반응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사건의 발생 시기, 발생 기간, 발생 순서, 동거특수성 등의 요인들이 있으며, 청소년 위기에 이들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제안한 도식은 생태학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던 학생이 별안간 심리적 변화가 생겨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보다 원근에서, 보다 거시적인 체계 즉 사회역사적 변화에서 촉발되었음을 보인다. 사회역사적 변화는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과 학교의 변화는 다시 그 속에 있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력에 노출된 학생 청소년은 학업중단이라는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다.

학교와 학업에 대한 왜곡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대학입시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 이외에도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사회구조의 갈등과 급기야 1998년 초의 IMF 사태와 같은 사회·역사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학생들의 1차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소위 말하는 가정과 학교라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틀에 대한 의심과 갈등이 야기된 상태에서 IMF 사태로 인한 구조조정은 가정의 심리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약화시켰다. 또한 학업성적,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의 상실, 학교 공부의 필요성 결여, 학교의 규정이나 규칙에 적응하기 어려움,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는 것과 같은 학교에서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1차적 환경의 붕괴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변화를 일으켰다. 정서적으로 청소년들은 매우 공격적이었고, 무기력과 우울을 호소하였다. 인지적으로는 불투명한 미래, 학교 공부의 필요성 의심, 학업 흥미 상실이 나타났으며, 폭력, 갈취, 부적절한 성행동과 같은 비행 행동적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은 심리적 반응은 그들을 집으로부터 나오게 하였고(가출), 학교로부터 나오게 하였다(학업중단).

그들의 가출과 학업중단은 심사숙고 없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단 가정과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은 사회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 많은 학업중단청소년들이 다시 학업을 유지하기 원하였으나 대안학교와 검정고시 학원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경제적 활동을 원했으나 직업적 소양도 없었고 사회는 그들을 받아들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준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주유소, PC방, 유흥업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노동현장에서는 부당한 대우 등(전경숙, 2006)으로 비행을 가속화시켰다. 실제로 1년 후에는 보호관찰을 받는 등의 비행 행동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이 한 사람의 행동이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사회, 경제, 역사적 환경이 청소년의 직접 체계인 가정과 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개인의 심리적 요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에 주목한다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개입 지점과 방법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조망이 요구됨을 알게 된다. 한국 사회가 교육의 의해 단기간에 성공하였다고들 한다. 그러나 본 개관 연구는 그러한 성공 이면에 청소년의 여러 문제들 - 가출, 폭력, 학업중단 - 도 함께 자라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개관하면서 정리한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들은 이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구본용, 유제민 (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33-146.
- 금명자 (2003). 상담 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의 변화,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청소년의 삶과 고민: 10년의 변화,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48, 한국청소년상담원.
- 금명자, 권혜수, 이자영, 이수림, 김상수 (2004). 학교밖청소년 종합지원체제구축운영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9.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금명자, 권혜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 (2004). 학교밖청소년 욕구조사, 학교밖청소년 길 찾기,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50, 21-44.
- 금명자, 주영아, 이자영, 김태성, 김상수, 신현수 (2005). 학교밖청소년 평가도구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111,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규태 (2002).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동민, 금명자, 권혜수, 이소영, 이희우, 이광호 (2003).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구성 및 운영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 105
- 김민 (2000). '학교붕괴', 신화인가 현실인가? 교육인류학 3(2), 1-29
- 김민정 (2001).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및 과제, 청소년복지연구 3-1
- 김순규 (2004). 가족 환경요인 청소년학업 중퇴에 미치는 영향 -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53.
- 김옥엽, 이연숙, 원유미 (2004). 전라북도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의식 및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분석, 상담학연구, 5(3), 725-741.
- 김용훈 (2006). 학교 중퇴 청소년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김혜영 (2002).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13-242
- 박경애, 김형수, 최한나, 박관성(2001). 상담활동의 경향과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94, 한국청소년상담원.
- 박현선 (2003). 청소년의 학업중퇴 적응과정에 대한 현실기반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53.
- 배영태 (2003). 중고생의 중도탈락 인과모형 검증과 판별척도 개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송복, 손승영, 조혜정, 황창순, 김병관, 정경희 (1996). 학업중퇴자 연구 - 실태와 대책,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신현숙, 구본용 (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의 비교: 개인 및 사회 환경변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6(3), 121-145
- 안현의 (2002).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 상담문제연구보고서 46,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안현의, 이소영, 권혜수 (2002).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험 조사,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46, 19-31.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오현애 (2002). 학교중퇴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 학교중퇴 청소년의 사회적 지원 체계에 대한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성경, 이소래 (1998).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 체제 개발 연구, 서울: 청소년대화 의광장
- 윤미경 (2002) 잠재적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적응

- 유연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홍익대학교 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미원 (2006). 학업중단청소년 실태: 실업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2006
- 윤여각 (2002). 학업중단 청소년 정책 및 실태 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 윤여각, 박창남, 잔병유, 진미석 (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이병환 (200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 방안, 한국교육, 29-1, 175-196.
- 이소영 (2000). 학교중단 청소년의 중퇴 이후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영 (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 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이승재 (2004). 청소년의 학교중퇴 원인과 선도 방향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 이창호, 지승희, 장미경 (2002).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단위 관련 기관간 연계 협력체제 구축방안,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상담원
- 장석민 (1988). 중퇴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전경숙 (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 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 - 가출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3-22.
- 정홍자 (2005). 경기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아라 (2001). 중고등학교 학업중퇴생 증가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조영승, 구분용, 신현숙, 유순덕 (2001). 경기도 지역 중퇴생 선도, 보호 방안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기도: 경기도청
- 조한혜정 (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최정자 (2007).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관련 결정요인, 대구한의대학교
- 추병식 (2003). 학교붕괴의 탈근대적 의미, 청소년학연구, 10(3), 49-64.
- 표갑수 (1992) 학교중퇴의 원인과 과제, 청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4
- 홍임숙 (2004).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세계: 학교 중퇴자에 대한 사례 연구, 서강대학교
- 황선미, 신현숙 (2007). 고등학생과 진로적응훈련 중인 중퇴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진로장애 및 진로결정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1
- Danish, S. J., Smyer, M. A., & Nowak, C. A. (1980). Developmental interaction: Enhancing life-event processes. *Life-Span Developmental Behavior*, 3, 339-366.
- Elder, G. H., & Rockwell, R. C. (1978). *Economic depression and postwar opportunities in men's lives. In R. A. Simmons (Ed.), Research in community and mental health.* Greenwich, CT: JAI Press.
- Hetherington, E. M. (1981). *Children of divorce. In R. Henderson (Ed.), Parent-child interac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10. 08

최종 원고 접수일 : 2008. 01. 15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Drop-Out Adolescents in Korea

Myoung-Ja Keum

Daegu University

The school drop-out among the youth has grown to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since about 2000 and calls for an attention to its seriousness.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statistical reports and the previous empirical findings on the school drop-out and integrat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is social phenomenon. The main concepts and terminologies on school drop-out, the current statistics, the possible causal factors and the usual trajectory the youth take after dropping-out of school were discussed to conceptualize the issue. Analyses indicated 12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who dropped out of school. Those 12 characteristics were restructured according to the ecological conceptual model. The social instability and the financial crisis in the 1990's has eroded the stability of the primary environments of adolescents such as family and school. The family breakdowns from divorce and other reasons weakened psychological and financial support for adolescents. The diminished authority of teachers and school over students exposed conflicts between teacher and students, students' loss of purpose and interest in academic attainment. The adolescents showed emotional responses like increased level of depression, helplessness, aggression, indicated cognitive responses such as the loss of purpose and interest in studying, a heightened sense of uncertainty of the future, and behavioral responses like sexual acting out behaviors, and bullying. The unmet psychological needs of adolescents result in run-away and school drop-out behaviors, which in turn progress into juvenile delinquency as the society fails to provide adequate and appropriate guidance and interventions. The intervention strategies at the national level were proposed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drop-out adolescents, causes and process, ecological model